

고려대, 공정거래법 관련 국제 컨퍼런스 개최

기사입력 2013-10-31 12:09 기사수정 2013-10-31 12:09

고려대 혁신·경쟁·규제법센터(ICR센터)는 한국경쟁법학회, 서울대 경쟁법센터와 함께 11월 1일 오후 2시부터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공정거래법 사적 집행의 국제 동향과 한국 발전방향'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국내외 법학자, 법조계 실무가와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미국, 유럽 및 중국의 다각적인 현황과 이론, 실무를 심도있게 살펴볼 예정이다. 또 사적 집행에 관한 우리나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주제 발표도 마련됐다.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한국 경쟁법의 사적집행제도의 개요와 향후 발전방향'에 이어, 서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한국의 사적 집행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실제 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계와 실무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의 현실과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순서도 준비됐으며, 법무법인 율촌 박해식 변호사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차동 교수의 토론도 이뤄진다.

고려대 관계자는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에 대하여 학문과 실무 및 한국과 세계를 아우르는 통섭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법조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yjjo@fnnews.com 조윤주 기자